때아닌 우박 폭탄…축사 붕괴·낙과 피해

지난 31일 오후 5시40분께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우박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렸다. 지름 약 7㎝의 우박이 쏟아진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담양군 금성면 반디마을에서는 우박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독자제공〉

순천·담양·장성·화순·곡성일대 지름 7㎝ 우박 동반 집중호우 순천 659ha·곡성 581ha 등 과일·밭작물·시설물 피해 속출

지난달 31일 담양, 순천 등 전남지역 일대에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부터 8시까지 순천·담양·장성·화순 등지에 우박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지름 약 7㎝의 우박이 쏟아진 가운데 어린이 주먹만한 우박도 내렸다.

이날 내린 우박으로 순천군 월등·낙안면, 담양군 월산·금성·용면, 장성 북하·북이면, 화순군 동북·북면 일대에서 과일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659ha, 곡성 581ha, 담양 339ha, 장성 56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매실 585ha, 배 224ha, 단감 149ha, 사과, 복숭아 120ha, 밭작물 30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과수 등 농작물뿐 아니라 일반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일반 시설물 피해신고는 화순 108건, 담양 18건 등 126건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차량파손이 3건, 가로수 쓰러짐 3건, 비닐하우스 파손이 2건 발생했으며, 화순에서는 주택 처마와 축사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박은 주로 초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는데 기상청은 전날의 경우 상·하층간 기온 차이로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블루베리와 오디를 조기 수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사과, 고추 등은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오는 9일까지 피해 농가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세워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박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구비는 밭작물의 경우 ha당 220만 원, 과수 농약비용 ha당 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박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농가가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절대평가' 영어 난이도는 그대로

국어 EBS 연계 70% 대체로 평이…22일 결과 통지

2018 수능 첫 모의평가

"절대평가라 쉬울 줄 알았는데…. 똑같네."

1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 영어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영어 영역은 그동안 절대평가 전환을 앞두면서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떨어지니 그만큼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서 그런 '착각'을 했다가 당혹감을 느꼈던 선배들이 적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올 들어서도 첫 모의평가를 앞두고 이같은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다. 그 만큼 "절대평가라도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게 수험생들 일반적 인식이었다.

이날 광주에서는 오전 8시40분부터 62개 학교(1만8784명)와 10개 학원(1590명)에서, 전남에서는 102개 학교 3학년생과 졸업생 등 1만6510명이 첫 모의평가를 치렀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치르는 만큼 본 수능의 출제 방향, 난이도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전국 대부분의 수험생 뿐 아니라 재수생들까지 응시해 객관적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이라며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역별 응시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올 해 처음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 난도, 등급 분포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수험생·학부모·학교 모두 관심이 컸다.

오창욱 광주대동고 교사(영어)는 "절대평가가 쉽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오 교사는 "EBS 교재와의 연계율(70%)에도 불구, 간접연계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많고 어휘 수준이 높으며 까다로운 소재가 사용된 지문이 여럿 출제됐다"고 평했다.

국어 영역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달랐다. 전년도 수능시험 국어 영역은 한 페이지 전체를 채우고도 추가로 다음장 절반 가량을 지문으로 채우는가 하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엮은 지문 등이 출제돼 '최근 5년간 가장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올 모의평가를 접한 수험생·교사들은 지문이 예상과 달리 길지 않았고 EBS 연계율도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평이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신희돈 광덕고 교사(국어)는 "수험생이 읽어야하는 지문의 정보량이 줄었고, EBS 연계교재의 문학 작품과 독서 지문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이 느끼는 난도는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 교사는 그러나 독립적으로 출제되던 화법과 작문에서 4~7번 문항으로 결합된 새로운 출제 유형, 지난해 수능 3개 지문으로 구성되었던 문학도 4개 지문으로 출제된 점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정답을 발표하고 결과는 22일까지 통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응시자 수만 표기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비정규직노조 정규직 전환 요구 총파업 예고

전국 38만명…이달 29·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달 29일과 30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정부는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기 계약직은 기간제와 임금이 똑같고 승진, 승급이 없어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무기 계약직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급식조리원, 교무 보조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인원은 약 38만명이며 이중 약 5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노조 각 지부도 지역별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달 29일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 집회를 열고, 30일 서울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초여름 날씨 지속…미세먼지 걱정 없어요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 10~17도, 낮 최고 21~28도 분포를 보이겠다. 또, 이날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3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3일과 4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7, 28도까지 오르겠으며 당분간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주말인 4일까지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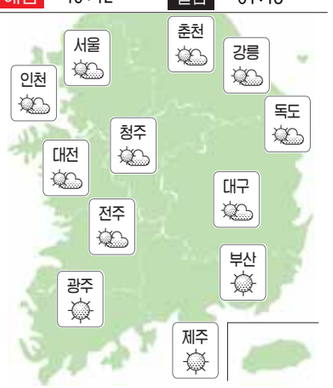
해뜸	05:19	달뜸	12:57
해짐	19:42	달짐	01:13

햇볕은 쨍쨍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4/26	보 성	맑음	12/26
목 포	맑음	16/24	순 천	맑음	15/28
여 수	맑음	17/27	영 광	맑음	13/24
나 주	맑음	12/26	진 도	맑음	12/25
완 도	맑음	16/26	전 주	맑은뒤 흐림	13/26
구 례	맑음	11/26	군 산	맑은뒤 흐림	14/23
강 진	맑음	13/27	남 원	맑은뒤 흐림	11/26
해 남	맑음	12/26	흑 산 도	맑음	15/21
장 성	맑음	11/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먼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북동	0.5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북~북동	0.5~1.5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피부질환	낮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44	08:16
	13:44	20:44
여수	09:33	03:04
	21:50	16:04

◇ **주간 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13/27	15/28	16/29	18/24	18/26	18/28	18/28